

# 둘에게 무슨 일이?...강진 실종 여고생 도대체 어디에 있나

숨진 아버지 친구 오후 5시 30분 귀가 후 의류 불태우고  
밤 9시 집서 7분 거리인 금사저수지 인근 차량 운행 포착  
여고생 실종 전 친구에게 "위험하면 신고해 달라" 문자  
경찰,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 총동원 대대적 수색 작업



20일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소재 동령저수지에서 119해상구조대원들이 실종된 A양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강진=김용희 기자kimyh@

사라진 여고생은 어디에 있을까?  
강진에서 지난 16일 오후 집을 나간 뒤 실종된 A(16·고교 1년)양을 찾기 위한 수색이 확대되고 있다.  
A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SNS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친구에게 "아버지 친구 B아저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고 해 같이 해남으로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현재까지 5일째 행방불명 상태.  
A양은 실종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후에도 친구에게 메시지로 "내일 아르바이트 간다. 메시지를 잘 보고 있더라. 위험하면 신고를 해달라. 다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라진 A양 숨진 B씨의 집 근처에 있나=20일 오전에 찾은 강진군 소재 B씨의 집은 개 짖는 소리만 났을 뿐이었다. 2600여㎡(800여평)에 이르는 B씨의 넓은 집 한쪽에는 식육견 2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축사가 있었다. B씨는 이 축사 한쪽에 분쇄기 등을 갖춘 별도의 창고를 갖추고 개 도축 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축사와 주변을 수색했지만, 혈흔 등 별다른 범행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B씨 집 주변에 설치된 최신행 CC-TV 4대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귀가한 B씨가 축사로 접근하는 모습도 담겨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양의 행방이 묘연함에 따라 다시 한번 개 축사 주변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 휴대전화 마지막 신고 잡힌 야산=경찰이 유력한 실종 장소로 보고 있는 곳은 A양의 휴대전화 GPS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16일 오후 4시 30분께)된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인근 야산이다. 지석리는 숨진 B씨가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마을로 산산 등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의 검은색 에쿠스(2012년식) 차량은 16일 오후 2시께 강진군 성전면 A양의 자택에서 600여m 떨어진 도로와 2시 15분께 강진과 해남경계 지역인 지석리 앞 편도 1차로 도로(18번 국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찍혔다. B씨의 차량은 평

소 인적이 드문 지석리 농로로 들어가 2시간 40분정도 머물렀다.  
B씨의 차량이 다시 지석리 앞 도로 CC-TV에 찍힌 시간은 이날 오후 5시께다. 마을 내부에 CC-TV가 없어 B씨의 행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B씨가 평소 에쿠스 차량의 블랙박스를 평소 끄고 다닌 습관 탓에 블랙박스에는 당일 어떤 행적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석리 야산 중 산세가 높지 않고 사람이 뜸어 주변을 한 눈에 관찰할 수 있는 특정지역을 지목, 예초기

해 인근 동령저수지 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B씨의 자택에서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군동면 금사저수지를 주목하고 있다.  
B씨의 차량이 16일 밤 9시께 금사리 마을 앞 도로 CC-TV에 금사저수지 방면으로 향한 모습과 10여분 뒤 빠져 나오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의류로 추정되는 물건을 불태우고, 차량 외부를 세차하는 모습이 자택 CC-TV에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현재 실종상태로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에 모든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B씨의 차량 등에서 확보한 체모 등 80여건의 물증을 확보해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20일 A양을 찾기 위한 수사·수색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프로파일러 등 실종분석전담반 6명을 투입한 데 이어 21일에는 타 경찰청 경찰력(10개중대 800여명)을 지원해 대대적 수색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진=김용희·남철희 기자 kimyh@

## 광주 혼자 살던 50대 여성 '고독사' 원룸서 숨진 지 3개월여 만에 발견

광주시 서구에서 혼자 살던 50대 여성이 숨진 지 3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27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119의 도움을 받아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강모(여·55)씨를 발견했다.  
강씨는 방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방에는 담배꽂이와 강씨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빈 소주병이 5개 가량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심한 악취가 풍겼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밀폐된 공간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강씨의 시신 상태로 미뤄 볼 때 숨진 지 최소 3개월여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혼인 강씨는 사기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는 중이었으며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혼자 지내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과 외상 흔적 등의 범죄 관련성이 없어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에는 최근까지 모두 4명이 홀로 지내다 숨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식용목적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

개농장 주인 벌금 300만원  
동물권단체 케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 유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부천에 있는 개농장 주인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지난 4월 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

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 혹은 피해가 있을 때나, 어떤 동물들이 다른 동물의 먹이로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때를 제외하면 동물을 죽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케어는 "와치 독"이라는 감시단 프로젝트를 발동해 전국의 개 농장과 개 도살 시설을 찾아내서 위법 행위를 관할 관청에 통지·발적으로 고발할 것이며,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광주 편의점서 만원권 위폐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2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편의점 점주가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편의점 점주는 지난 11일 이달 8~10일의 매출액을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금되지 않는 만원권 한 장을 발견했다. 발견된 1만원권 위조지폐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의점과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용의자의 지문 분석 등을 위해 위조지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순찰차 타려고...허위 살인 신고

순찰차 타려고...허위 살인 신고  
○...관취한 40대가 순찰차를 얻어타고 집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류종명 판사)은 이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는 것.  
○...정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구급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으나 거부당하자 112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살인신고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정씨 소재 파악에 경찰력이 1시간동안 낭비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